

광주 학원 교습비 오르나...학부모 부담 가중 우려

서부교육청조정위 평균 1.7% 인상 의결
입시·보습은 초등 8%·중등 11.4% '썩썩'
광주교육시민연대, 교육장에 '동결' 촉구

광주지역 학원 교습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학부모에게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전남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원 교습비 조정안을 의결해 교육장 고시를 앞두고 있다.
조정위는 전체 평균 인상률을 1.7%로 의결(교육청 중재안)했다. 특히 이용률이 가장 높은 입시·보습 학원의 경우 초등 8%, 중등 11.4%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시민연대는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학교 일부 학년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우려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며 "입시·보습 과목 교습비를 대폭 인상한 결정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서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와도 정면 배치된다.
서부교육청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2천231명 참여) 결과, 학부모의 88%가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79.8%가 지역 교습비가 비싸다

고 응답했다.
수용 가능한 상률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 10명 중 7명 꼴인 66.4%가 동결을 응답했으며, 교습비 심의 시 최우선 고려 요소로 '학부모 가계 실질소득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60.7%)를 꼽았다.
시민연대는 "학부모 상당수가 교습비 동결을 바랐음에도 무리하게 인상을 강행한 것은 민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태"라며 "학부모 여론 수렴 절차가 교습비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부교육청 학원 교습비는 이미 2024년 11월 평균 6.6% 인상된 바 있다.
시민연대는 "불과 2년 만에 입시·보습 과목을

중심으로 또다시 인상시킨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고물가 속에 가계 부담을 짊어진 학부모들의 현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서부교육청은 위원회의 인상 의결안을 수용해 고시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목소리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엄중히 받아들여 교습비 '동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에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이 참여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전남대병원·해남군 '뇌건강 안전망'
'24시간·365일 응급 핫라인' 신설

전남대학교병원이 해남군과 손잡고 급성기 뇌질환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퇴원 후 재활과 돌봄까지 책임지는 '지역맞춤형 뇌건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신경외과 주성필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뇌혈관질환 전원 연계 플랫폼'의 정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남군 및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함께 24시간 365일 빈틈없는 뇌질환 응급 협진망과 전 주기 뇌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남군은 인구 6만3천여명에 달하는 전남 최대 면적의 자치단체이자 고령화율이 30%를 웃도는 초고령 지역이다.

완도, 진도, 신안 등 서남부 도서 지역에서 내륙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지리적 격차 역할을 하고 있어 중증 뇌혈관 환자의 유입과 전원 수요가 상시 집중되는 곳이다. 반면 관내 의료 인프라는 의원급에 편중돼 있고 종합병원은 단 1곳에 불과해 중증 응급질환인 뇌졸중 발생 시 신속한 전문 진료와 이송 체계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실제 데이터에서도 뚜렷이 확인됐다. 주성필 교수팀이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6월) 플랫폼 누적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1건 중 해남우리종합병원 의뢰가 78건으로 40.8%를 차지했다.
특히 2026년 상반기(1~6월)에는 광주·전남 플랫폼 의뢰(66건) 중 해남우리종합병원 의뢰(36건)가 무려 54.5%에 달해 지역 내 전원 협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전남대병원과 해남군은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해남군-전남대학교병원 뇌혈관질환 24시간 직통 핫라인'을 가동한다.

/임재만 기자



자립예산 균등 지원 촉구 집회

30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설시 광주청사에서 광주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차별하는 지원 격차를 끝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영권 기자

북구, 1천억 규모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 나선다

옛 광주교도소·중외공원 일대 후보 검토
국회사무처 건립 연구용역 맞춰 구체화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북구가 1천억원 규모의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를 위해 후보지 검토를 구체화하고 있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함에 따라 북구도 관내 후보지에 대한 자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분관은 총사업비 1천억원여를 투입해 연면적 약 1만4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수행기관은 앞으로 약 9개월간 건립 부지 선정과 기본구상 수립,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와 국립광주박물관 주변 중외공원 일대 등 2곳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접근성과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부지 확보 가능성,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북구의 분관 유치 준비는 지난 2024년 12월 국회도서관이 완료한 '국회도서관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광주가 분관 입지의

최적지로 제시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 6월에는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관 건립 동향 파악과 관내 가용부지 조사,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유치 근거 마련 등에 나섰다.
북구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후보지 제안이나 유치 신청 절차가 구체화될 경우 자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향후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후보지 제안이나 유치 신청이 있을 경우 북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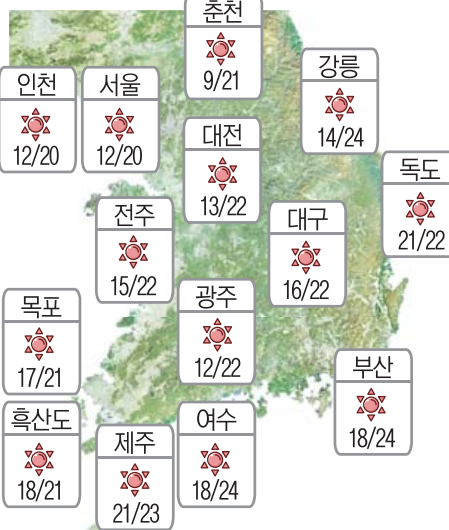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해질 18:17 🌙달돋이 21:03 달질 11:23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2/22	장성	맑음	16/21
목포	맑음	17/21	보성	맑음	16/22
여수	맑음	18/24	함평	맑음	16/21
나주	맑음	16/22	순천	맑음	17/23
완도	맑음	18/22	영광	맑음	16/21
구례	맑음	16/22	진도	맑음	18/21
강진	맑음	17/22	흑산도	맑음	18/21
해남	맑음	17/21	고흥	맑음	18/24
광양	맑음	17/24	담양	맑음	15/22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5	0.5-1.5
	면바다(북)	1.0-2.5	1.0-2.5
남부	면바다(남)	1.0-2.5	1.0-2.5
	앞바다	0.5-0.5	0.5-0.5
남해	면바다(동)	0.5-1.5	0.5-1.5
	면바다(서)	0.5-1.5	0.5-1.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4:49	09:57	11:55	05:15	12:33	06:15
	17:36	22:33	23:48	17:50	--:--	18:07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80

세 차 8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5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2일(금)	3일(토)	4일(일)
☀(12/22) 맑음	☁(11/23) 구름많음	☀(14/25) 구름조금
5일(월)	6일(화)	7일(수)
☁(15/22) 구름조금	☀(13/22) 구름조금	☀(12/24)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남평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1, 6일로 끝나는 날

전국최초 퓨전시장

목사고을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5일장

영산포 풍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0, 5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나주시

광고문의 : 062)650-2099

CMYK